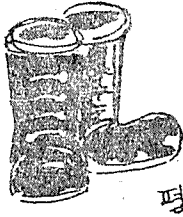


# 돼지 불고기를 먹고



평

金 茲 林

우리집식구들은 불고기를 좋아 한다. 특히 돼지고기를 고추장에 무친 불고기를 아주 좋아들 한다.

이북(以北)태생이라 그런지 돼지고기는 소고기보다 더 좋아 한다.

이북은 추운지방이다. 기름기가 필요했고 더우기/평안도 지방은 화기(火氣) 하는 풍토병(風土病)이 있다. 그 병에는 돼지 고기가 약이었다.

별경계 뚝뚝히 부어올랐던 자리를 깨끗이 가라앉게하는 작용을 돼지고기가 해주곤 했다. 나는 의학자(醫學者)가 아니나 그 신묘(神妙)한 효험을 분석해서 설명할수는 없으나 지금 생각해도 그 신통력에 놀라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우리고장 사람들은 그 화기병의 예방으로 미리 돼지고기를 먹어 두곤 하기도 했던거다. 그 습성 때문

인지 주기적으로 소고기보다 더 생각나는게 돼지고기다. 그러므로 우리집 밥반찬에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그야 물론 돼지불고기임은 말할 것 없다.

그렇듯 가장 인기있던 메뉴였는데 하루 아침에 두들겨 패듯 추방당하고만 돼지고기의 슬픈 운명을 나는 여기서 이야기 하지 않을수가 없다.

얼마전 병원에서의 일이다. 큰아이가 입원한 바로 옆방에 중년부인이 입원하고 있었다. 보기에는 멀쩡한 여인이 병실이 답답한듯 병실복도를 자주 이리저리 거닐곤 했다.

그 환자를 지나칠 때마다 궁금했다. 무슨 병으로 입원자료중인지 참으로 궁금했던 차에 아이의 담당의사한테 물었더니 대답

“돼지고기때문이죠. 큰일입니다. 돼지불고기는 절대로 자시는거 아니죠?” 하는게 아닌가. 한편 놀라면서 도 내 앞은 의학상식으로는 어찌서 큰 일나는지 알 수가 없어 꼼꼼히 다시 캐 물었더니 돼지고기 속의 촌충(寸虫)이 뇌에 침입하면 간질병 환자가 된다는



했다. 그러면서 그 중년여인이 바로  
그런 환자라면서

“글쎄 돼지불고기를 그렇게 좋아했  
다지 않습니까. 잘 익지 않은 건 안 돼요.  
현대인이 그렇게도 의학상식이 없  
어서야 참 한심한 일예요. 안 그렇  
습니까?”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날 이후 돼지불고기는 우리 식탁  
에서 모습을 감추었으며 그동안 즐겨  
먹은 그 위(胃)속 주머니까지도 끄낼  
수만 있다면 뒤집어 말끔히 세탁하고  
싶은 그런 흉통과 결벽증에 사로잡혀  
있는 요즘이다.

<원자=女流小說家>

### <토막상식>

性能力을 오래 오래 가질  
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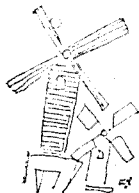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이다. 중년에서  
노년(老年)에 걸쳐 일어나는 이른바 성  
인병(成人病)은 성능력에 영향을 주는  
일이 많다.

당뇨병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병이  
다.

성적 관심을 잃지 말아야 했고, 또는  
자기의 나이가 지나쳐서, 틀렸다는 열등  
감(劣等感)을 갖지 말아야 한다. 성욕  
은 식욕처럼 개인차(個人差)가 심하다.  
자기가 만족하던 그만이지, 절대 얻는  
걱정은 절대로 말아야 한다.

<外誌에서>

## 분풍(糞風)과 더블 어



### 이 한 수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외국 관광객  
을 유치해서 외화를 벌겠다는 응지로  
세워진 것이 바로 워커힐이었다. 그  
래서 당초에는 내국인(內國人)은 출입  
금지지가 되고, 패스를 받은 몇몇 특  
권층만이 그곳의 근대적 시설을 만끽  
하는 영예를 누린 시절도 있었다. 이  
무렵 나는 특권의 영예가 아닌 대수  
롭지 않은 일로 워커힐을 몇번 드나  
들어야 했다. 그때는 바야흐로 혼풍  
이 불어야 할 봄.

그런데 마침 일단의 외국 귀빈들이  
우리나라를 찾아 왔고, 그들의 스캐  
주올엔 워커힐에 여장을 푸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이 소식을 듣고  
적이 걱정이었다. 그렇다고 그것은  
입밖에 낼 성질의 것도 아니었다. 그  
런데 저녁녘이 되어 그 귀빈들의 일  
단이 헬리콥터로 워커힐로 향했다는